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북부 기독교학교, 라마단 기간 동안 강제 폐쇄**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 학교들이 지역 주지사 명령에 따라 라마단 기간 동안 강제로 문을 닫게 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카노·카치나·바우치·케비 주의 주지사들은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 동안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라마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에 기독교 종교지도자, 교사 노조, 학생 대표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카치나의 이슬람 종교경찰 책임자는 “사립학교에도 폐쇄 조치가 적용된다. 불이행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안상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오픈도어 법률 전문가는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교육권은 학생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권리다. 이 조치는 기본적 교육권과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것이 만든 선례는 종교적 소수자의 다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학생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Nigerian Students)의 샘슨 아데예미 대변인은 “당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종교적 의식을 우선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도 이를 비판했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의 다니엘 오코 대주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라마단 기간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며 “이 결정은 나이지리아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의 삶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굽진파는 기독교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공격, 살인, 납치, 방화 등을 일삼고 있다. 폭력의 대부분을 자행하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슬람 단체 ‘보코하람’의 이름 자체가 “서양식 교육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1서 5:3-5)**

하나님,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린 나이지리아 북부 4개 주를 꾸짖어 다스려 주옵소서. 공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빼앗으며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이지리아 교회가 주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대상인 무슬림을 위해 라마단 기간에 더욱 공격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이 기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에 간구에 응답하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중국, 티베트 학생 대상 애국 교육 강화

중국 당국이 티베트 학생들에게 애국 교육을 강화하며 공산당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선전 영화를 상영하고, 애국적 내용을 주제로 한 이야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이념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미신적인’ 사고를 버릴 것을 요구하며 티베트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티베트 전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중국의 국가 정신과 온정을 깊이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새 학기의 첫 번째 수업’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산당의 혁명 정신을 기리는 ‘붉은 유전자’(red gene) 개념을 강조하며, 티베트 학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정신을 주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베트의 한 지역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붉은 이야기’(Red Stories) 경연대회를 열어 공산당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1월 발생한 딩리(定日) 지역의 지진 복구 작업을 소재로 한 선전 영상을 상영하며, 구조 활동을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과 연결 시키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시편 33:12-14)**

하나님, 중국이 티베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으로 티베트를 공산화하려는 중국의 만행을 꾸짖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과 심각한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땅의 다음세대의 민족성마저 말살시키려는 위기에 놓인 티베트인들을 굽어살펴 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 주셔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기업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백성을 통해 티베트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소서.

### ▲ 승실대, 비기독교인 교직원 채용 배제 수정 인권위 권고 거부

승실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 배제 규정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자를 필수 조건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승실대에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승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한 진정인이 승실대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인권위는 이를 종교에 의한 고용 차별로 보고,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승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며, 기독교 신앙을 채용 필수 조건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법인에 있음을 강조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3-4,6)**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에 예수 생명을 전하려 오신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승실대가 타협하지 않고 설립 목적을 지키며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강한 세속의 물결 속에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 안에서 더욱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부정권 시대 회귀? …군인, 민간 직책 겸직 가능법 추진**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역 군인도 민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역 군인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고문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가 축출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이런 폐단을 막았다. 지금은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고, 다른 관직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겸직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다시 민간 영역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군법 개정 지지자들은 20년이 넘은 군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군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현역 군인을 장관으로 세우고 교통부와 농업부 등 고문으로 임명해 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군복을 입히고 군대식 워크숍을 진행하더니 최근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육군사관학교로 불러 군 훈련을 받게 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프라보워 정부 들어 정부 내 군 색깔이 짙어지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현역 군인이 정부 직책을 맡으려면 먼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돼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도네시아 젠테라 볍대의 비비트리 수산티 교수도 “군이 모든 분야에 개입하길 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시편 33:16-17,22)**

하나님,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군부를 이용하여 이전과 같이 강압적으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책망하시고 많은 군대로 나라의 부강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탐심을 멈춰주시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손을 들어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영원한 기업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에콰도르, 원유 유출로 25만 명 식수 문제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시에서 강물을 시커멓게 변하게 한 기름 유출 사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송유관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지난 13일째부터 기름이 강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를 포함한 강물 수십km 구간이 기름으로 뒤덮였다. 에스메랄다스 지역 인구는 25만 명가량인데,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에스메랄다스 강까지 오염되면서 식수 문제를 겪고 있다.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시 당국은 15 일 친인데 지역 비체 강 기름 유출 사태에 따른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빅코 비야시스 에스메랄다스 시장은 “새로운 환경 재앙이 전례 없는 생태학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에콰도르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편 19:7-8)**

하나님,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송유관 손상으로 식수원으로 쓰이는 강까지 기름으로 뒤덮여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민들의 식수와 함께 심각한 생태학적 피해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 앞에 위정자들이 겸손히 주님의 교훈과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에콰도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참된 증거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진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주의 계명으로 눈을 밝히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 영국, Z세대 신앙 회복으로 성경 판매 87% 증가

영국에서 성경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18일 전했다. SPCK 그룹과 닐슨 북 데이터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성경 판매액은 2019년 269만 파운드(50억 7,073만 원)에서 2024년 502만 파운드(94억 6,365만 원)로 87% 증가했다. 출판업계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Z세대의 영적 관심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논픽션 도서 판매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6% 감소한 반면, 종교 서적 전체 판매액은 지난해 2,520만 파운드(475억 426만 원)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4세의 62%가 자신을 영적이라고 답했으며 무신론자 비율은 X세대(25%)와 밀레니얼세대(20%)보다 낮은 13%였다. SPCK의 최고 경영자(CEO) 샘 리처드슨(Sam Richardson)은 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신앙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이며, 무신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 건강 위기가 신앙 회복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성서공회의 마크 우즈(Mark Woods)는 개인 구매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마서 10:11-13)**

하나님, 영국에서 성경 판매가 급증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이것이 주를 향한 다음세대의 영적인 목마름의 반응임을 보며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각 영혼을 만나 주셔서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흘려보내 부요하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마디아 프라데시 최고 장관, 강제 개종에 사형 구형 방침 발표…기독교계 반발**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의 모한 야다브(Mohan Yadav) 총리가 강 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종교 개종을 범죄로 간주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국제크리스천컨션(ICC)이 13일 전했다. 기독교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다브 장관은 3월 8일 주 수도 보팔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종교 개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개종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행사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디아 프라데시주는 이미 반(反)개종법을 시행 중이며, 2021년에는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인도 내 11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 법적 규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

기독교 공동체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전국 기독교 연맹인 ‘사르바 이사이 마하사바(Sarva Isai Mahasabha)’의 제리 폴(Jerry Paul) 회장은 야다브 장관의 발언이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힌두 극단주의 활동가들이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지지를 받으며 기독교인들과 교회, 기독교 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팔에 거주하는 가톨릭 지도자 다니엘 존(Daniel John)은 인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에서 강제 개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종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제 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수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디아프라데시 주의 인구는 약 7,200만 명이며, 이 중 80%가 힌두교인, 21%는 원주민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0.27%에 불과하지만, 힌두 민족주의 세력은 기독교 선교 활동이 원주민들의 종교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해 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편 55:17-18,22)**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개종법과 사형이라는 형벌로 기독교인을 더욱 박해하려는 인도를 꾸짖어 주소서. 주여, 지금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께 속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아프간 감금 70대 영국 남성, 한달반만에 영양실조 등으로 위중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사업을 하다 탈레반에 체포된 영국인 피터 레이놀즈(79)가 감금된 지 한 달 보름 만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 17일 AFP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그의 딸 사라 엔트위슬은 아버지가 영양실조와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레이놀즈는 감금 중 구타를 당하고 족쇄가 채워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부인(75)과도 서로 격리된 상태다. 레이놀즈 부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8년간 학교에서 훈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지 교육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2021년 탈레반에 재집권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했다. 그들이 체포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딸은 부모가 현지 여성들에게 양육 기술을 가르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탈레반 당국은 레이놀즈 부부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지만, 부부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정부의 내무부 관계자는 이들의 억류 사실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편 40:2-3)**

하나님, 오랜 시간 아프간인들을 위해 교육 훈련을 해온 영국인 부부가 탈레반에 붙잡혀 감금과 구타를 당해 영양실조 등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놓인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주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레이놀즈 부부가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또한 자국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에게까지 억압과 폭행을 가하는 탈레반을 꾸짖어 주시고 다스리사 아프간에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 스페인 법원, 하반신 마비 20대 딸의 안락사 막으려는 아버지 소송 기각

스페인 법원이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한 20대 여성의 결정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18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여성이 2021년 합법화된 스페인의 안락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버지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세의 이 여성은 2022년 건물 5층에서 투신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법원에 안락사 허가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며, 그녀의 상태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딸이 안락사를 재고하는 듯한 징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정에 개입한 모든 전문가는 그녀가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장애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반하는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가장 개인적인” 권리에 대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입증됐다”며, 이는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약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베드로전서 2:16)**

하나님, 안락사라는 그릇된 선택을 한 20대 딸을 살리고자 한 아버지의 소송을 기각했다는 스페인의 가슴 아픈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생명에 대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들을 속이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약을 행하는 데 쓰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택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스페인 교회를 복음의 통로 삼으사 성도들의 삶과 사역, 섬김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많은 이들이 주를 따르게 하소서.